

제61주년 경찰의 날 치사

이택순 청장을 비롯한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

그리고 전경·의경 여러분,

예순한 돌 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임기제를 도입해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경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치적으로 엄정한 중립을 지키면서 오직 국민을 위한 일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를 제주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경찰 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에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해 범

죄 건수가 12% 가까이 감소한 데 이어 올해에도 3% 정도 줄어들었고, 교통사고 사망자와 학교폭력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센터 설치와 과거사 진상규명 등 자체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 국민의 신뢰를 크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15만 경찰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경찰관 가족 여러분께도 각별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관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지금 우리의 치안상태는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심하거나 만족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은 차분하고 성숙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또한 불안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경찰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민생침해사범과 각종 폭력범죄를 뿌리 뽑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더욱 친절한 봉사자세로 치안역량을 극대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 주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경찰은 독재정권을 위해 국민을 억압하던 과거의 경찰이 아닙니다. 경찰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폭력까지 휘두르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시위가 있을 때마다 경찰관 아내들이, 그리고 자식을 전경·의경으로 보낸 부모님들이 가슴 졸이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됩니다. 경찰도 공권력의 과잉행사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회·시위 관리업무를 한층 전

문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찰관 여러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 내부의 민주화, 투명화와 더불어 권력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내부 개혁은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기관 간의 일부 권한조정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관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갈등을 낳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결정도 어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좀더 성의 있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경찰관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불철주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희생과 봉사만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과 처우도 함께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4천 명 이상 경찰인력을 증원했습니다. 근속승진제 확대와 직급조정을 통해 승진적체도 다소나마 해소했습니다. 내년 7월 광주와 대전 경찰청이 신설되면 업무부담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일반직무와 관련한 경찰관의 국가배상 청구를 가능하도록 했고, 순직경찰 유가족에 대한 보상도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도 여러분을 지원하는 데는 결코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를 보다 과학화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 세계 초일류의 대한민국 경찰을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경찰의 날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